

마고자의 착용법 및 기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earing Method and Origin of *Magoja*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홍 나 영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 : Na Young H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유물로 고찰한 마고자 |
| II. 문헌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마고자 | V. 마고자의 기원과 유래 |
| III. 구한말의 사진을 통해 본 마고자의
종류와 착용법 | VI.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Magoja is a jacket for men and women. *Magoja* was worn between the jacket, *jogori* and the coat, *durumagi*; that is over the jacket and under the coat. In the 19th century, Daewon-kun, who was wearing *maqua*(馬褂), was in China and he came back to Korea. So, it was believed that the origin of *magoja* was from *maqua* from Qing. Bu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magoja* and *maqua* in their design. Therefore, I researched the origin of *magoja* and tried to know the design and the method of wearing *magoja* in the Chosun dynas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design of *magoja*, especially its collar, was different from Chinese *maqua*. As analyzed above,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origin of *magoja* as deriving from Daewon-kun's *maqua*, which he wore when he went to Qing. *Magoja*-style jacket can be found from many old pictures. The collar of those jacket, whose style was *waonsam-git* unlike the present-day *magoja*, is consistent with the collar of *sagyusam* or *baeja*. And this kind of *git* style had exi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s already studied in *bangryungbangbi*. Furthermore, the origin of this kind of jacket dated back to the *maeksu*(貉袖) of the Sung Dynasty; *maek*(貉) meaning Koguryo, *maeksu* was understood to indicate the style of the Koguryo jacket of

Corresponding Author: Na Young Hong,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467 Fax: 82-2-3277-2852 E-mail: nyhong@ewha.ac.kr

short sleeves for the convenience of horseback riding. *Maeksu*, which varied in its kind and style, had been used as the equestrian clothes in China and was assumed to be particularly put on widely during the Yuan and Sung Dynasties. *Maeksu* continued to exist as *daegeumeui* during the Ming Dynasty but, later called *magua*, it was worn more widely during the Qing Dynasty of the Manchus. This kind of *maeksu* or *magua* was the jacket which could be put on the coat and this style of wearing it during the Chosun Dynasty could be confirmed by the pictures. Therefore, *magoja* is not the jacket which was all of sudden derived from Qing's *magua* but one of traditional Korean clothes of the northern provinces which had exis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magoja* seemed to be put on more widely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because of the influence of Qing's *magua*.

주제어(Key Words): 조선(Chosun dynasty), 마고자(magoja), 상의(jacket), 마괘(maqua), 청(Qing)

I. 서론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으로 깃트입에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오지만 저고리와는 달리 V형의 목둘레에 깃이 없다. 추운 지방에서는 '덧저고리'라고도 한다. 보온에도 좋고 풍신하여 애용되었다. 뒤에 가서는 이 남자용 마고자를 본 따 여자도 마고자를 만들어 입게 되었으며(柳喜卿, 1975: 632) 방한용이 아닌 멋을 위해서도 착용하였다. 오늘날 남자 한복 일습이라고 하면 마고자를 거의 포함시켜 생각하고 있으며, 남자들의 일상복에도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고자를 필수적으로 입고 있다.

이 마고자의 기원에 대해서 "마고자란 마괘(馬褂)라고도 하며 원래 만주인의 옷이었던 것을 대원군이 만주 보정부(保定府)에서의 유폐생활에서 풀려 나와 귀국할 때(1887년) 입고 돌아와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여 입었다"(유희경, 1975: 632)라고 하여, 19세기 말 대원군이 마괘를 청에서 가져온 것이 마고자 착용의 시초로 생각하여 왔다.

마고자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윤오영의 수필(현대한국수상록(1984), 14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마고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마고자를 입을 때마다 한국 여성의 바느질 솜씨를 칭찬한다. 남자의 의복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호사가 마고자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같은 다른 옷보다 더 값진 천을 사용한다. 또, 남자 옷에 패물이라면 마고자의 단추다.

마고자는 방한용이 아니요 모양새다. 방한용이라면 덧저고리가 있고 잘덧저고리도 있다. 화려하고 찬란한 무늬가 있는 비단 마고자나 솜 든 것은 촌스럽고 청초한 겹마고자가 원격이다. 그러기에 예전에 노인네가 겨울에 소탈하게 방한 삼아 입으려면 그 대신에 약식인 반배를 입었던 것이다.

마고자는 섹이 알맞게 여며져야 하고, 섹귀가 날렵하고 예뻐야 한다. 섹이 조금만 벌어지거나 조금만 더 여며져도 표가 나고, 섹귀가 조금만 무디어도 청초한 맛이 사라진다. 깃은 직선에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등글어도 안 되며, 조금 더 파도 못쓰고, 조금 덜 파도 못쓴다. 안이 속으로 짝 붙으며 앞뒤가 상그럽게 돌아가야 하니, 깃 하나만 보아도 마고자는 솜씨를 몹시 타는 까다로운 옷이다.

마고자는 원래 중국의 마괘자에서 왔다 한다. 귀한 사람은 호사스러운 비단 마괘자를 입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청 마괘자를 걸치고 다녔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마고자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고자는 마괘자와 비슷도 아니 한 판 물건이다. 한복에는 안성맞춤으로 어울리는 옷이지만, 중국 옷에는 입을 수 없는, 우리의 독특한 옷이다. 그리고 그 마름새나 모양새가 한국 여인의 독특한 안목과 솜씨를 제일 잘 나타내는 옷이다. 그 모양새는 단아하고 아취가 있으며, 그 솜씨는 섬세하고 교묘하다. 우리 여성들은 실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받아 온 안목과 솜씨를 지니고 있던 까닭에, 어느 나라 옷을 들여오든지 그 안목과 그 솜씨로 세계 맞는 제 옷을 지어냈던 것이다. 만일, 우리 여인들에게 이런 전통이 없었던들, 나는 오늘 이 좋은 마고자를 입지 못할 것이다.

윤오영의 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의 마고자는 우리 옷의 기본형이 직령형 깃이 달린 것과는

달리 깃이 달리지 않고 앞여밈도 쉼이 여며지지 않고 맞닿은 대입형(對襟形)이다. 반면 청나라의 마패자는 높고 둥근 깃이 달린 형태이다. 따라서 두 의복은 형태상 차이가 분명하다. 이렇게 전혀 다른 깃이 달린 의복이 대원군 당시에 국내에 들어왔다면, 그것이 한복에 맞게 형태가 변용 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원군의 착용을 그 기원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원군이 청의 마패를 입은 것에서 마고자가 비롯되었다는 설에 대해 의문을 갖고, 마고자의 형태와 착용법, 기원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과 중국의 문헌자료와 사진에서 마고자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문헌 고찰하였고, 이를 한국의 복식유물 등을 참고하여 실증하고자 하였다.

II. 문헌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마고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단 한 차례 마고자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즉, 고종 37년 10월 22일 어진(御眞)을 모사하는 일을 흥덕전에서 진행하게 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효종이 심양(沈陽)에 있을 적에 지은 붉은 행전(行纏), 마고자(摩古子)와 여러 왕대 임금들이 쓴 고적(古跡)들이 모두 불타버리는 화를 면하지 못하였으니 그 절통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효종(1619~1659)이 심양에 있을 때 지었던 마고자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으며, 이것이 다른 고적들과 함께 불에 타버렸음을 알 수 있다. 즉 마고자의 기원이 청에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고종 때의 대원군의 마고자에 의한 것보다 분명히 앞서는 것이다. 즉 그 전래시기에 대해, 효종이 청에 가 있을 때 입었던 것을 1645년 국내에 들어오면서 전해졌을 가능성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효종대는 물론 그 이전이나 이후 조선왕조실록의 어디에도 마고자나 마패의 기록은 없다.

이후 마고자에 대한 국내의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이 궁중발기에서 보인다(국학진흥연구사업 운영위원회, 1994: 22, 47, 53).

명미구월동결냥면마마의 턱불기(의대발기31-1)

황운문단농포

다홍색운문사늑작

옥색양속주의 일

옥색

옥색양속마고즈일

옥색갑사동의 턱일

옥색삼팔동의 턱삼

토슈삼

회색왜단봉디일

회색왜두봉디삼

마고의 턱

송화색별문고단소고의일

명스구월이십칠일냥면마마의 턱호와보닉오신불기(의대발기52)

옥색갑사주의일

옥색양속마고즈일

옥색삼팔주의일

남별문단토슈삼

회색왜두봉디삼

명스시월동결냥면의 턱불기(의대발기57-1)

금치룡홍비일츠

황한단농포

다홍수운문갑사늑작

양남양속패츠

옥색유문양속립주의

고동색양속양립주의일

연지회색별문단배츠일

미색양속마고즈일

옥색갑사동의츠일

옥색삼팔동의츠

토슈연지회색남갑스

회색·고동색왜두봉디이

이 세 차례의 발기가 기록된 것은 丁未年과 丁巳年으로 정미년은 1907년, 정사년은 한일합방 후 7년 되는 1917년으로 보인다. '양속'은 김용숙의 연구에서 '洋屬'이라고 보고 이를 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金用淑, 1987: 396). 발기에 기록된 순서로 추정하여 보면 요즘의 마고자와 같이 바지, 토시, 저고리

를 착용한 위에 마고자를 입고 그 위에 주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의대발기에 보이는 마고자는 오늘날의 마고자와 그 형태나 착용법에 다름이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효종이 심양에서 입고 왔다는 마고자는 청의 마괘(馬褂)를 말하는 것이며,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기었다가 다시 고종이후 등장한 것인가? 아니면 효종 당시의 마고자는 오늘날의 마고자와는 다른 형태나 이름으로 존재하였던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일단 현재 남아 있는 구한말의 사진과 유물을 통해 마고자형으로 추측되는 복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I. 구한말의 사진을 통해 본 마고자의 종류와 착용법

최근 구한말과 일제초기의 사진자료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촬영한 후 출간한 것으로 그 설명도 부정확한 것이 있다. 따라서 사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검증하여 가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구한말의 사진을 조사해 보면 <도 1>, <도 2>와 같이 바지 저고리 위에 요즈음과 같은 양식의 마고자

를 입은 모습이 나타난다. <도 2>의 악사들을 보면 오른쪽 끝에 앉은 여성과 오른쪽에서 두 번째의 인물이 마고자를 입고 있으며, 그 옆에는 조끼를 착용한 인물도 있다. 이 사진은 서양복이 전래되어 조끼가 입히기 시작한 때이므로 개항이후 다소 시간이 흐른 후 촬영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와는 다른 사진들도 발견되는데 두루마기 위에 마고자를 입은 사진이 그것이다. <도 3>에 보이는 선비는 정자관(程子冠)을 머리에 쓰고 고급으로 보이는혜(鞋)를 신고 토시와 두루마기로 생각되는 포(袍)를 입은 위에 마고자를 입고 있다. 마고자의 형태는 오늘날의 마고자에 비하면 수구가 다소 넓어 보이지만 안에 입은 포의 수구와 같은 정도로서, 그밖에는 오늘날의 마고자와 같은 양식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도 4>는 민영목(1826~1884)가의 사진인데 마고자를 입은 세 사람 모두 포 위에 마고자를 입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고자를 포위에 입는 착용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착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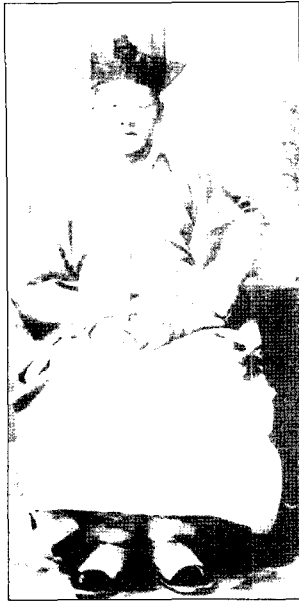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문헌을 살펴보면, 1775년(영조51)에 실학자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저술한 필사본 수신서인 土小節에 '아무리 날씨가 춥더라도 짧은 저고리를 위에 끼어 입지 말고[勿以短襦襲於上], 몹시 더운 날씨가더라도 옷깃을 열지 말고 짧은 적삼만을 입지도 말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마



<도 1> 마고자를 입은 노인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도 2> 마고자와 조끼를 입은 악사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



<도 3> 양반의 기념촬영
출처: 민족의 사진첩 Ⅲ



<도 4> 민영복가(閔泳穆家)
출처: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

고자란 말을 등장하지 않지만,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짧은 저고리를 포 위에 입는 옷차림이 조선후기에 성행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도 4>의 오른쪽 끝 인물이 착용한 마고자의 형태는 깃들레선을 보아 오늘날의 마고자와 같은 형식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쪽에 자리잡은 두



<도 5> 마고자를 착용한 부인들,
출처: 민족의 사진첩-Ⅲ. 민족의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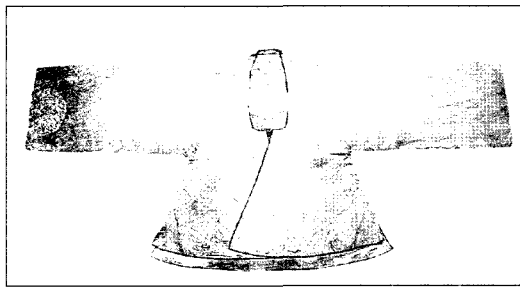
<도 6> 마고자 치림의 부인들
출처: 먼나라 꼬레

사람의 옷은 마고자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깃 둘레가 다소 굴러진 형태이고 동정도 달린 형태이다. 이 상의에 달린 깃은 조선시대 배자에 달았던 깃과 같은 양식으로, 오늘날의 마고자와는 차이가 있으나 역시 마고자라고 생각된다. 당시에 두 가지 양식의 마고자가 모두 존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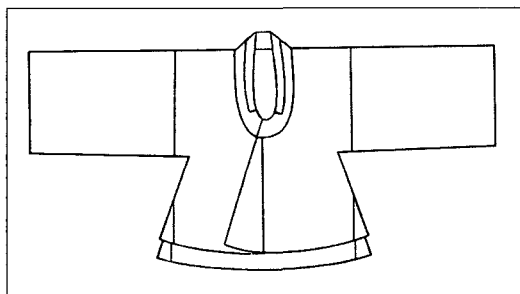
한편 여성들의 마고자 착용도 <도 5>와 <도 6>에서 보이며, 여성들의 마고자 양식은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 다만 단추가 위아래로 마주 달려있어 마치 조선시대 원삼 단추를 보는 듯하다. 또한 모든 사진에서 남녀 모두 성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고자의 소매길이는 손목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저고리의 수구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께념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IV. 유물로 고찰한 마고자

경기도 박물관 소장인 <도 7>과 <도 8>의 이연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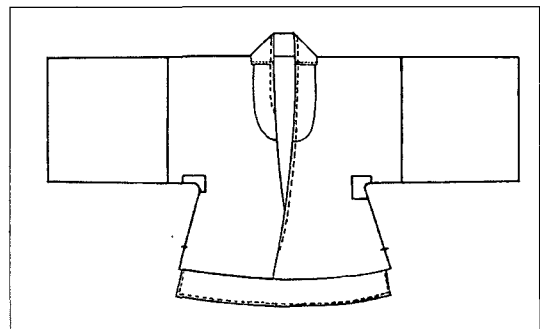
<도 7> 이연응 (李沆應, 1818~1879) 대금형 상의



<도 8> 이연응 대금형 상의 실측도

(李沆應)의 상의는 개화기의 사진에서 보이는 형태와 일치한다. 이연응의 생존연대는 1818~1879년이며 이 상의를 보고서에서 대금형 상의로 명명하였다(이은주, 2001:300). 이와 유사한 <도 9>의 대금형 상의가 함께 출토되었으나 여기에는 깃이 칼깃의 형태이며 쇠이 없고 바느질이 거친 것으로 보아 수의용으로 제작된 것일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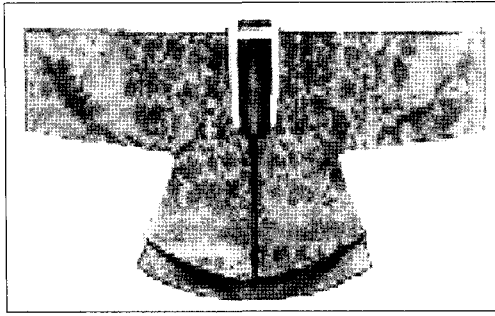
한편 <도 10>과 <도 11>에서 보이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마고자 유물이 전해지고 있다. 숙명여대 소장 마고자의 겹은 청색 도류운보문단(淸靑雲寶文緞)이며 안은 홍색명주이다. 배자와 같은 형식의 맞깃에 흰색 동정을 달았으며 앞자락이 뒤보다 9cm가량 짧은 남자용 마고자다. 특히 맞깃은 앞길의 안에서 꼬집어 박아 그 형태를 만들고 뒤에만 깃을 달아 배자를 만드는 방법과 같아, 화장의 길이는 요즘의 마고자에 비해 매우 짧은 편으로 착용자의 체구가 작았거나 소매를 포나 저고리에 비해 다소 짧게 입었던 것일 수 있다. 이 마고자의 양식은 결국은 조선시대의 배자에 소매가 달린 양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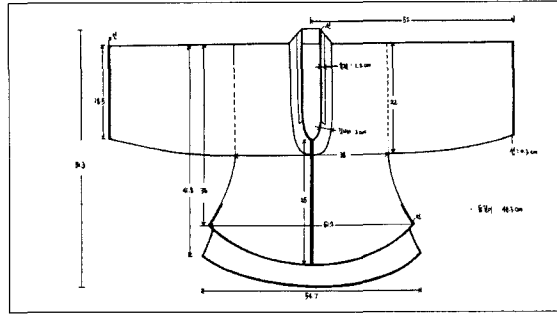
<도 9> 이연응 대금형 상의 2

<표 1> 유물 치수표

	도8	도9	도10
길이 앞/뒤	68/74	61.5/69.5	41.8/51.3
폭	50	47.4	38
화장	78	61	52
진동	34.8	35.8	22



<도 10> 마고자, 속명여대 박물관소장



<도 11> 속명여대 마고자 실측도

16세기	16세기	16세기	17세기	17세기	18세기	18세기
A형	B형			C형		원삼 깃형
	B-1형	B-2형	B-3형	C-1형	C-2형	
벽진이씨 액주음 전 박정군 후단반비	정은 방령 신여관 방령	정응두/이대 I, II 남이흥 방령	동래정씨 배자 I	동래정씨 배자 I, II	김억원 답호 반비	홍감보 반비 최숙담호/반비

<도 12> 방령반비 깃 모양의 변화 출처: 홍나영, 1999:121

구한말의 사진과 마고자 유물을 보면, 한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조선 후기의 마고자는 배자와 같은 맞깃이 달린 형태에서 깃이 없는 형태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며, 그 이행과정에 해당되는 예가 바로 <도 4>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고자와 배자에 달린 맞깃의 형태는 조선조 후기동안 내내 같은 형태였을까 아니면 이 역시 다른 깃 모양에서 변화되어 온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조선 후기 출토 복식에 보이는 깃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방령 반비에 관한 연구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의 배자 깃의 모양은 홍감보(1699-1763)와 최숙(1636-1698)의 반비와 답호에서 처음 나타난다. 방령반비에 대한 연구(홍나영, 1999:

121)에서 밝혔듯이, 방령이 시대가 내려옴에 따라 방령의 이중선이 사라지고 외각선이 둥글어지면서 배자의 깃 모양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은 <도 12>와 같다. 따라서 마고자는 16세기 방령의(이화여대박물관, 1995: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1:150)와 유사한 방령에 소매가 다소 짧은 형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V. 마고자의 기원과 유래

서론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마고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청의 마괘(馬褂)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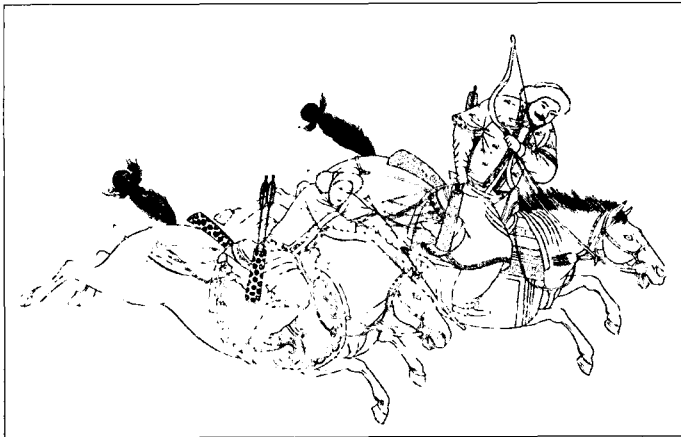
존의 설이었다.

이에 마괘에 대해서 알아보면, 마괘는 말타기에 편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단괘(短褂)라고도 부르며, 앞 트임에 길이는 허리를 넘지 않고 아래가 트여 있다. 소매는 길고 짧은 두가지 양식이 있다. 수구는 평평하고 전수(箭袖)를 만들지 않는다. 마괘의 종류도 다양하며, 비단 이외 각종 동물 가죽도 사용되었다. 청대 여자들도 마괘를 착용하였다(Dickinson, Wrigglesworth, 2000: 116).

마괘는 장군과 상급의 군인들, 몽골과 중국의 팔기군들도 개인적으로 황제를 수행할 때 이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색은 그들의 속한 연대의 것을 따랐다. 그러므로 연대의 색은 각 부대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였다. 관리들이 비공식적인 복식으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할 때도 마괘를 입었다(Dickinson, Wrigglesworth, 2000: 116). 청 건국초부터 마괘가 있었고, 康熙朝(1662-1721) 말년부터 雍正朝(1723-1735)시기에 부잣집 자제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남녀귀천의 구별 없이 상복으로 입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周迅, 高春明, 1996: 219). 즉 청말에는 일종의 상복(常服)이 되어 일상적으로 집에서 입었고, 일반적으로 포(袍) 밖에 이를 입었다.

이러한 마괘의 제도는 옛날의 맥수(貉袖)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송시대에 “貉袖”라는 이름을 가진 의복이 있었으며, 중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수렵도(도 13)의 반비를 맥수라고 하였다(周錫保, 1984: 320). 이 그림에 대해 沈從文은 “복장과 마구(馬具)들을 보면 모두 遼·金때와 비슷한 제도이며, 만들어진 시대도 비교적 빠를 것이다. 사람은 몽고인과 같이 머리를 쌍환(雙環)을 하고 귀 뒤로 늘어뜨리지 않았고, 말 역시 원대의 장속(裝束)이 아니다. 五代十國때의 회골(回鶻)족이거나 북송이 關에 들어간 후의 관리직 인물 같다. 짧은 소매와 주상괘(肘上褂)를 입었는데, 한대(漢代) 여자의 상유(上褙)·당대의 반비에서 발달된 것이며, 송대에 맥수(貉袖)라 했다. 그러나 그 원류는 강호(羌胡)족에서 나왔다”고 하여, 맥수의 기원이 한족(漢族)의 복식에 기원을 두지 않고 오랑캐 복식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沈從文, 1981: 357). 王宇清도 “마괘는 호북에서 기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맥족(貉族)의 옷에서 왔다. 짧은 소매를 강조하기 위하여 貉袖(半袖)라고 하였으며, 마괘의 전신이 맥수이다.”라고 했다(王宇清, 1987: 70~71).

한편 송대 會三異 同話錄에는 “요즘 선오(旋襖)라는 의복이 있는데 그 형태가 길이는 허리를 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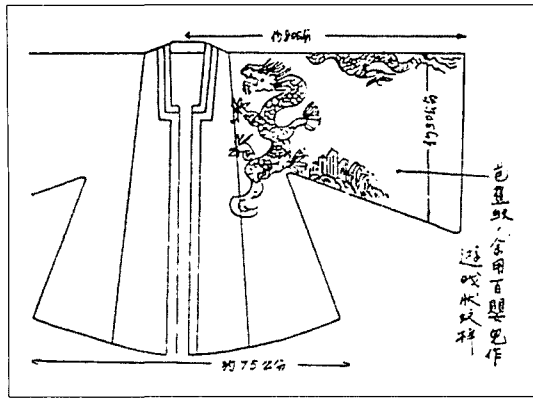
<도 13> 宋人繪 《射獵圖》

출처: 沈從文, 1981: 357



<도 14> 元釉陶騎馬俑

출처: 沈從文, 1981: 358



<도 15> 定陵출토 방령의

출처: 周錫保, 1984: 460

얇고 소매는 반소매이다. 두툼한 감으로 만든다. 겹으로 안감이 있고 혹은 솜을 든다. 자색이나 검은색으로 가장자리를 두른다. 어마원(御馬院) 마부로부터 비롯되었다. 전단후금(前短後襟)이라는 것은 안장에 앉아 벗고 입는데 방해되지 않는 것이다. 짧은 소매는 말 타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貉袖는 옷 위에 입으며, 남녀가 모두 그러하다. 오늘날에는 사대부가 이를 입어도 괴이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貉袖와 旋襖는 명칭이 다르되 모양은 같으며(周錫保, 1984: 278), 원·명·청 때 기사(騎士)에게 사용케 하였고 후대의 마괘(馬褂)의 전신임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즉, 원대의 騎士俑(도 14) 및 원대의 打馬球圖의 球衣와 서로 같으며, 이런 맥수는 명대에서는 “對襟衣”라고 불리었다고 한다(沈從文, 1981: 357). 洪武 26年 “기사(騎士)는 대금의를 입어 승마에 편하게 한다. 입어서 안 되는 자가 입으면 죄가 된다.”라는 기록에서 명나라 초에는 마괘가 무장(武將) 기사의 전용이었으며 평민은 마음대로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沈從文, 1981: 357).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장군이나 상급의 군인이 마괘를 입었다는 청의 복식규범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두 복식의 상호연관성을 나타내준다.

한편 이 맥수가 조선시대의 방령반비와의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다. 박성실은 방령반비가 가례도감의 褂 등에 보이는 호수(胡袖)로서 중국 定陵 출토의

황후 방령의(도 15)와 유사하고, 이 의복이 송대의 貂袖에서 元代的 鶴袖를 거쳐 조선시대 世祖代 好袖(鶴袖)와 조선후기의 胡袖로 변천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貉袖는 학수로 읽고 있다(박성실, 1992: 459). 반면 김진구는 好袖는 소매모양에 대한 이름이고 인조대의 胡袖는 의복명이라고 하였다(金鎮久, 1999: 361).

세조실록을 보면 6년(1460) 庚申 乙卯(4월9일)에 세자 가례시 빈씨가에 보낸 남징예물목록에서 ‘好袖小襖子即鶴袖虛其胸’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을 복역본 리조실록에서는 다홍빛갈의 비단으로 지은 호수가 달린 작은 옷옷(호수는 곧 학수인데 앞 가슴부분은 터놓았다)이라고 번역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虛其胸’에 대하여 김진구는 수구가 좁고 소매통이 넓다고 해석한 반면 박성실은 가슴이 빈 옷이니, 앞섶이 여며지지 않는 옷 즉, 방령으로 추정된 것이다(박성실, 1992: 459). 그러나 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규명이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虛其胸에 대한 세조실록의 기록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미루고, 貉袖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貉袖’의 ‘貉’은 오소리나 담비와 같은 동물을 의미하며, 맥으로 읽고 중국에서는 he², hao²로 읽는 반면, 북방의 오랑캐를 의미할 때는 맥, mo⁴로 읽는다. ‘貉’은 ‘貂’과 같으며 貂은 夫餘國을 의미한다. 또한 後漢書 東夷傳에 “句麗二名, 貂耳 案 貉即今朝鮮國地”이라 하여 맥이 고구려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貉袖’를 북방 오랑캐의 소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맥수라고 읽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고구려의 복식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세조실록에 기록된 학수라는 말에 대해 알아보면 ‘鶴’도 역시 ‘貉’과 마찬가지로 he, hao, mo로 읽힌다(諸橋轍次, 1986).

이와 관련하여 박두이(1997)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기마인이 착용하고 있는 소매가 짧은 옷을 맥족(貂族)에서 연원된 맥수라 하고, 맥수와 반수(半袖)는 같은 옷의 다른 명칭이라 하였다. 마고자와 모양이 비슷한 전개합입형의 옷이 고구려 안악3호분의 벽화에 나타나 있으며(유송욱, 1987), 특히 조선시대

전 박장군 묘에서 출토된 소재 면접구의는 그 형태가 마고자와 매우 유사하여 마고자는 상고시대의 상의에서 고려 조선시대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차츰 편리하고 간편한 마고자로 변화되어 왔다고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유송옥, 1998: 344).

王宇滿(1987)도 고구려 고분벽화(덕흥리, 무용총, 감신총)의 기마인이 착용한 곤은 것 교임형 반수단 상의를 맥수라고 지적하였다. 맥수는 알타이족의 한 갈래인 맥족에 의하여 자생한 기마, 수렵의 용복이며 방한의이며, 이는 맥족의 지리환경 및 생활 환경에 의해 자연 탄생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星湖僮設에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張光弼의 宮詞에도, ‘궁중의 옷차림은 고려의 모습을 새로 숭상하여서 방령은 허리에 지나건만 어깨는 반밖에 덮이지 않는다.’ 하였다. 지금의 풍습에도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는데, 길이는 무릎까지 닿지 않고 넓이는 어깨까지 닿지 않으며 양쪽 옷자락은 서로 싸이지 않고 방령이 겨우 마주 닿는 것이 학창(鶴裳)과 비슷하다. 양쪽 옆으로 구슬과 가락지를 달아서 마주 끼우게 되는데, 옷 이름을 패배(掛背)라고들 한다. 光弼의 시에서 말한 것이 즉 이 패배라는 것인데, 풍속으로 되어 전해온지 이미 오래다. 요즘 이 패배를 도복(道服) 위에 덮어 입는 이도 있으니 추측컨대 고려시대에도 이와 같이 했고 원나라 사람이 본떠서 만들었던 것인 듯 하다”고 하였다(李瀾, 1976: 185). 즉 이익의 글에서 방령으로 된 반비가 조선 후기에 있었으며, 고려의 옷으로 원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입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방령이 출토유물과 그 형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복 위에 패배를 입었다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구한말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같았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용 중 학창과 관련된 내용은 현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알고있는 학창의는 방령이 아닐뿐 아니라 대창의와 같은 형태의 흰색 포에 검은 선을 두른 것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만 패배의 양옆에 구슬과 가락지를 달아 마주 끼운다는 것도 오히려 배자의 형태를 연상하게 한다.

한편 閑靜堂集에 “반비라 하는 것은 지금의 패자

(掛子)와 비슷하다. 다만 패자의 쇠이 직수(直垂)한 것이 다르다.”(宋文欽, 1999: 413)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해석한다면 반비는 쇠이 있어 교임형으로 착용되는 것이고, 패자는 대금형의 의복인 것 같다. 정약용은 雅言覺非에서 “패자를 패자(快子)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음이 잘못 옮겨진 것이다. 중국음인 掛子(괘즈)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丁若鏞, 1976:150) 이에 박두이(1997)는 패자가 방령의 반수단상의로 맥수와 유사 의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패자가 단상의가 아닌 패자(快子) 즉 전복(戰服)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마고자로 보았던 이연응의 대금형 상의에 대해서 이은주도 마고자 혹은 패자라는 명칭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김병학의 신종록에 보이는 반배(半褙)인데, 소림과 대림에 각각 2점씩 반배가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이은주, 2001: 300). 한편 마고자가 동배자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으니, 숙명여대 소장 어린이의 색동마고자를 색동 등걸이로 명명하고, 그 근거를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의대목록(1932년) 내용 중 ‘남송색동부금 동배자’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편, 2000:32). 그러나 궁중발기인 덩스시월동궐낭년의 티볼기(의대발기57-1)에서 배자와 마고자가 나란히 등장함으로써 마고자를 배자로 불렀을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마고자가 기록에 등장하기 이전에 무엇으로 불리웠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와 그를 근거로 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보았을 때 마고자의 기원을 대원군이 청에 갔을 때 입은 마패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많은 사진자료에서 이미 마고자형의 상의가 나타나며 그러한 상의의 것은 오늘날의 마고자와는 달리 깃의 형태가 원삼, 사규삼, 배자 등에서 보이는 맞깃의 형태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한 깃

의 형태는 이미 방령방비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의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옷의 기원은 송대의 맥수에 까지 그 기원이 올라가며 맥수의 맥이란 고구려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마에 편리하게 소매가 짧았던 고구려의 복식을 의미한다고 본다. 맥수는 중국에서 기마인의 복식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였지만 특히 원·송대에 많이 착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대에도 맥수는 대금의로 그 명맥을 이었지만,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던 청에서는 더욱 많이 입히게 되었으며 마패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맥수나 마패는 포위에 입을 수 있었던 의복이며, 조선시대에도 포의 위에 입었던 사실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고자는 청의 마패에서 갑작스레 도입된 의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북방계의 우리 옷의 한가지이며, 고려때에도 착용되어 원의 복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고, 이것이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착용되었다고 본다. 특히 그 형태는 조선조 출토복식 중 방령반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청의 마패와 유사한 복식으로서 조선후기에 더욱 널리 착용되게 되었다고 본다. 다만 대원군이 착용한 마고자에서 우리나라의 마고자의 기원을 잡는 것은 적어도 대원군의 마패 착용이 마고자의 유행에 불을 지핀 것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마고자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은 현재의 자료로 볼 때 조선조 말부터라고 보며, 이전에는 어떠한 명칭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2003). 먼나라꼬레-아폴리트 프랑딩. 경인문화사.
 국학진흥연구사업운영위원회(1994). 古文書集成 十二-藏書閣 編 Ⅲ.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用淑(1987). 朝鮮朝 宮中風俗 研究. 일지사.
 金鎮久(1999). 好袖의 名稱. 복식문화연구, 7(3), 357-61. 단국대학교 석주선박물관 편(2000).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단국대학교 출판부.
 諸橋徹次(1986).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朴豆伊(1997). 半臂의 源流와 變遷에 관한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朴聖實(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생활과 풍속(1986). 서문당.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생활과 풍속(1987). 서문당.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편)(1991). 韓國服飾. 단국대학교출판부.
 沈從文(1981). 中國古代服飾研究. 南天書局有限公司.
 王宇濤(1987). 貂袖와 馬褂. 服飾, 11.
 유송옥(1998). 韓國服飾史. 수학사.
 유송옥(1987). 개화기 서양복식 유입의 충격과 수용. 전통문화와 서양문화 Ⅱ. 성균관대 출판부.
 柳喜卿(1975).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이은주(2001). 이연응 묘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李瀾(1976).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회의.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1995). 복식. 이대출판부.
 丁若鏞(저) 金鐘權(역주)(1976). 雅言覺非. 일지사.
 朝鮮王朝實錄.
 周錫保(1984).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周迅, 高春明(1996). 中國衣冠服飾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宋文欽(1999). 閑靜堂集. 한국문집총간 225. 민족문화추진회.
 최석로(1994). 민족의 사집첩 Ⅲ. 서문당.
 현대한국수상록(1984). 14권. 금성출판사.
 後漢書.
 홍나영. 後段 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服飾, 44, 117-129.
 Dickinson. Gary & Wrigglesworth, Linda (2000). IMPERIALWORDROBE. Berkeley, CA: Ten Speed Press.

(2003년 3월 25일 접수, 2003년 4월 25일 채택)